

“검은 반도체’ 해남 김 ‘글로벌 스탠다드’로 키우자”

명현관 군수 “전례없는 전 세계 수요 증가... 전 부서 협업” 주문 “발전 방향 모색·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면밀히 준비해야”

해남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검은 반도체 ‘김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남 농수산업 미래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산업 진흥에 전 부서가 협업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 군수는 “해남군의 농수산업은 매년 전체 예산 중 30% 이상을 투입하는 우리 군의 주요 산업”이라며 “특히 김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전량이 때때 부족해지는 점에서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이 청정바다로 둘러싸인 해남군은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100여개소에 이르는 최대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해남 김은 지난해 최초로 물김 위판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인 113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지난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황산면의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종 김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가공에도 착수했다.

군은 올해 말 정부 김 육상 양식 공모사업에 도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육상 양식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 또 세계적인 기준에 맞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미래산업으로서 어업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김은 지난해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로, 지난해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과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본 등지의 김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과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집적화한 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육·해상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첨단 스마트 연구개발은 물론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초 농수산물 수출 협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통해 김 수출의 가능성을 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양식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농어촌 수도 해남의 발전동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군민광장 음악분수 개통 해남군 군민광장에 음악분수가 조성돼 환상적인 여름밤의 휴식을 선사한다. 해남군은 군민광장에 위치한 원형분수대를 철거하고, 군민 친화형 열린공간으로 총 65m 길이 분수시설을 확장하는 등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군민광장 분수시설은 주간에는 바닷분수 등 어린이가 물놀이터로 운영하며, 야간에는 음악분수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해남군 제공>

해남 의료 취약지 ‘농촌 왕진버스’ 달린다

군, 18일부터 9개 지역농협과 함께 12개 읍·면 대상

해남군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18일 문내면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청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에서는 해남읍을 비롯해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마산, 산이, 문내, 화원 등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9개 지역농협과 함께 사

업을 추진한다.

의료진진은 농촌주민들의 질병 관리와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며, 주요 내용은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돌보기 서비스 등이다. 고령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에 신청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기반 시설이 취약한 농촌 주민들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의료·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다도해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취사·야영·흡연 등 8월 18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진웅)가 공원 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도서 출입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응하고자 오는 8월 18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사전예고 집중단속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하여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

인도서(진도, 조도지구, 도초·비금지구, 흑산도·홍도지구 일원) 해안가 및 갯바위, 탐방로 일대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광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신안군,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금 4억여원 지급

‘내고장진학’ 등 270명 선발

(재)신안군장학재단이 미래를 이룰 인재 발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장학금’을 선발해 장학금 4억여원을 수여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장학재단 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장학생으로 초·중·고·대학생 등 270명(우수대학생 101명, 내고장진학 32명, 저소득 장학생 68명, 다문화가정 25명, 만학도 32명, 낙도학생 2명, 어가와 저소득 10명)에게 장학금 4억 1750만원을 지급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선발했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재)신안군장학재단)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안군은 성적 우수대학생 장학생 선발은 하반기부터 장학금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생활안정을 통한 학업 지원을 돕고자 ‘대학생 생활비 지원금’도 신설



박우량(왼쪽 두번째) 신안군수가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선발을 위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한다.

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지역학생들과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

란다”며 “더 많은 지역 학생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월출산 아래 콘서트, 달 뜬 밤에’ 신촌블루스 출신 강허달림 무대

20일 영암 달마지센터서 콘서트... 영암달마지밴드도 참여

영암월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위드석봉협동조합이 오는 20일 영암읍 달마지복지센터 야외무대에서 주말 정기문화행사를 펼친다.

‘월출산 아래 콘서트, 달 뜬 밤에’를 주제로 그룹 신촌블루스 보컬 출신 강허달림(사진)이 무대에 오른다.

강허달림과 오랫동안 작업해온 재즈피아니스트 민경인, 베이스 최진배, 드럼 조규원 등과 결합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음악가로 청년성악그룹 브리앙트와 달마지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암달마지밴드



(색소폰)가 참여해 분위기를 돋운다.

조정현 영암월출마을관리협동조합이사장은 “월출산을 무대로 감성이 묻어나는 음악 콘서트이자 영암수제맥주와 어우러지는 행사로 여행객에게는 추억을 더하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여유로운 삶의 문화를 갖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1달간 20% 할인받고 3복더위 이기자

진도군 ‘진도아리랑물’ 1! 2! 3! 프로젝트 8월 13일까지

진도군이 지역 인터넷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물을 통한 지역 농어가의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진도아리랑물 1! 2! 3! 프로젝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1개월 동안 아리랑물 입점 전품목에 대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5만원권 쿠폰 3장을 가입고객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사는 오는 8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할인쿠폰은 재사용될 수 없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살·추석 명절, 가정의 달, 북맞이 행사 등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탈북민·글로벌 근로자 진도서 한마음 올림픽

20일 다문화 등 1천여명 참여

진도군이 탈북민과 함께하는 ‘진도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 행사가 오는 20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 진도! 세계는 하나! 탈북민도 함께!’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탈북민, 지역 자문위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바자회를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체육행사, 장기 자랑,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행운의 골드바 2점을 증정하고, 대형 TV와 대형 냉장고,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김남중 진도민주평통 회장은 “국적, 종교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경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